

◎한국 IPG의 활동

-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2019' 참가 01
-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참가 02
- 'ECCO IPR 컨퍼런스 2019' 참가 03
- '특허전쟁 - 글로벌 무역분쟁 시대, 지식재산 보호전략 -' 참가 05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위조품 차단은 세관의 지식재산권 신고부터
- 한국에서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증가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짧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국 IPG에서는 올해 3월에 개정한 '모방 대책 매뉴얼' 한국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아래의 자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서 ↓

<https://www.jetro.go.jp/form5/pub/obc/shiryo2011>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9월19일, 한국에서 특허등록 ○○호를 기념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발명자에게 특허증을 직접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 ① 20만 ② 200만 ③ 2000만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2019’ 참가



한국 특허청이 주최한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2019’가 9월 5일, 6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PATINEX (Patent Information Expo) 는 세계 각국의 특허정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박람회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식재산 정보, 혁신성장의 모멘텀’이라는 주제 하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및 기관이 전하는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전시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세션 1에서는 ‘지식재산 경영과 개방형 혁신’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혁신기업 Henkel-Adhesive Technologies의 IP관리 책임자는 ‘IP는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개방형 혁신 활동의 전략적 IP관리는 IP의 복잡성을 구조화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핵심 요소는 거래결정을 하는데 조기에 기여하는 IP 기능, 백그라운드 IP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적절한 시점에 우수한 품질의 IP와 경쟁력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Morgan, Lewis & Bockius LLP 소속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협업의 관계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며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은 협업의 핵심적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혁신성장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환’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교수는 여러 아시아 국가가 IP침해자에서 IP제작자와 보호자로 변모해 온 모습을 소개하고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며 세계 최대 시장이자 성장의 동력·혁신의 발전소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특허청(JPO) 특허정보실장보좌는 ① 2019년 5월에 일부 기능이 개선된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 ② 신장망 기계 번역을 기반으로 한 특허 기계 번역 플랫폼(일본어→영어), ③ JPO의 문헌 및 상태정보를 TSV형식으로 변환한 표준 데이터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SK주식회사 소속 변리사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도모한다는 자사의 IP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션 3에서는 ‘혁신 융합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에 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IT기업 샤오미의 강연자는 발표를 통해 ‘기술 융합은 여러 산업분야와 적용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이고 건강한 환경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미래의 기술 융합에는 IP 부분 도전과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혁신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례로 기술 융합의 일종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AIoT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를 설명하고 블록체인 기반 IP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assault Systems Korea 이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도시에서 모델링하고 검증 후 현실 세계에 구현함으로써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이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외 약 20개의 특허정보서비스 기업과 기관의 전시부스에서는 다채로운 특허정보 서비스가 소개되었으며 IP5(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세계 5대 특허청)의 전시부스와 워크숍에서는 각국 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참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직속) 주최의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이 9월 4일 경기도 과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5G 시대를 맞이하여 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더불어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손꼽히는 지식재산에 대해 그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지식재산기준법 제29조의 2)’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경제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여 2019년에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으로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각계 많은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기념식으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식재산은 AI,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 등 신기술 창출의 기초적 존재라 할 수 있다’며, ‘개인과 기업이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을 관련 R&D분야에 투자하는 등 기술 자립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며 R&D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력 확보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3개 단체(인천시, 부산시, 울산시)를 대상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는 수상자(12명)의 기술 분야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시상하였습니다.

세션 2에서는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조연설자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글로벌 제약시장의 규모는 약 1,600조 원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극복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10년~15년이 소요되고 임상시험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허 획득과 유지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특허를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지식재산 창출·보호·저작권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발표 첫 번째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기획팀장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기술트렌드의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적으로 무역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계의 트렌드와 기술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거시적 분석으로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한 후 미시적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 혁신기술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특허법인 아주(AJU Kim Chang & Lee)의 변리사는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IP 가치 재분배 방안’을 주제로 ‘특히 실시료율은 IP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한국의 기준 로열티율과 관련된 자료는 너무 적어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민간기업을 통한 실시료 데이터의 수집이 힘든 상황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가공해 수집하기 위한 업무협력,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는 ‘글로벌 저작물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가치 증진 방안’에서 ‘한국의 저작물이 활발하게 소비되는 나라, 또는 잠재적 시장으로서 가치가 큰 나라를 중점 관리국가로 선정해 해당 국가에 집중 관리단체를 설치하고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형성에 기여하는 저작물 분야 ODA사업을 구체화할 것을 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장 내에 설치된 지식 관련 기관·단체의 부스에서는 지식재산제도 홍보와 퀴즈 이벤트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IPG**

‘ECCK IPR 컨퍼런스 2019’ 참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공동주최: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의 ‘IPR 컨퍼런스 2019’가 9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CCK는 IP 집약산업(IP 활동의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이 한국 GDP의 43%에 기여하였으며 약 56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해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IP 정책이 중요하고 IP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때야말로 혁신, 또는 창조성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컨퍼런스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IP의 발전현황에 관한 다양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IP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한국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I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간의 융·복합에 맞춰 IP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에 열렸던 IP5(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세계 5대 특허청) 장관 회의에서도 AI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특허청도 협의 심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융·복합기술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재산의 효과’에 관한 강연에서 IP 집약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IP 집약산업이 한국 전체 고용의 29.1%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IP 집약산업의 임금이 IP 비집약산업에 비해 1.5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와 IP 보호정책에 대해 발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수사관이 ‘위조상품 단속 활동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9월 한국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위조 상품으로부터 상표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하고 그 전담조직으로써 2013년 9월에 산업재산조사과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조사과에는 43명(이 중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27명)이 근무 중이며 관리지역을 3곳으로 나누어 서울, 대전, 부산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년간 위조상품에 연루된 범죄자 2,744명을 검거, 514만여 점을 압수하였으며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4,388억 원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그 방법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해외 직구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가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의 제조는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거나 반가공 상태로 수입해 한국 내에서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여 온라인 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범죄집단을 단속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병행수입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신뢰도를 보호하며 소비자 즉,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은 해외 거래처 검증을 통한 진정 상품의 품질 인증 즉, 안전성이 확보된 병행수입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하고 병행수입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과 더불어 2019년 3월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부여받는 등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신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은 2019년 7월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타인의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

대 3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인정되는 특허권 실시료(라이선스 비용)의 인정기준이 ‘통상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실시료의 인정비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권리 미등록자를 위한 보호 정책의 일례로써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비밀관리성 규정 부분이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무죄 판결의 경우가 많아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변경했었던 것에 대해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고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정의를 ‘비밀로써 관리된’으로 변경한 경위를 설명하며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IP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확대 예로 2019년 4월부터 경력 단절 주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며 오픈마켓, 포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관련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허전쟁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지식재산 보호전략-’ 컨퍼런스 참가

한국특허청과 전자신문 주최로 ‘특허전쟁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지식재산 보호전략-’ 컨퍼런스가 8월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①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이슈는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에서 비롯되었고, 지식재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② 지식재산은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이며,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영 자산이다, ③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④ 지식재산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있다. 이에 미래 국가의 경쟁력이 될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무역분쟁 시대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대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강연자인 탐엔지니어링 상무는 ‘해외기업 특허 분쟁 대응을 통한 사업성공 및 IP Management’ 를 주제로 자사 특허 분쟁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초강연자인 현대자동차 지적재산 실장은 ‘지

동차 산업의 특허분쟁 / 소송 동향 및 전략'을 주제로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식재산실에서는 어떤 특허를 만들어 개발할 것인가, 이외에도 일반적인 자동차산업의 특허소송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별 강연자인 한국기술거래사회 수석부회장(전 부품소재 통합 연구단 소장)은 '한일 특허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소재 전쟁의 전개방향'을 주제로 세계 불화수소 특허 가운데 한국 점유율은 10% 가량이며, 한국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R&D투자를 확대하거나 미국 등 해외 선두기업과의 특허기술 라이선스로 일본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 강연자인 WIPS의 전문위원은 '한국무역전쟁, 반도체 소재 IP 경쟁력 분석을 통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관련 한일 양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관련 특허는 4,028건으로 점유율이 61%에 이르는 반면, 일본 내 한국 출원 등록은 468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IPG}



KOREA IP NEWS

※제트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한국특허청 (2019.7.5)

2019년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② 특허청, 유명 마스크팩 대규모 짝퉁 제조 유통업자 단속

| 한국특허청 (2019.7.18)

특허청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하여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F사의 '7DAYS 마스크팩'은 모 공중파 TV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③ 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 4천여 건 판매중지 조치, 4,189억 원 상당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 | 한국특허청 (2019.7.23)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



퀴즈 정답

정답은 ② 200만입니다. 한국의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2019년 9월 19일자 한국지식재산 뉴스 게재)

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하여 5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하여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위조 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하여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이었는데,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기로 소문난 브랜드들이다.

상품별로는 가방 17,421건, 의류 12,098건, 신발 1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특허청, 10개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 한국특허청 (2019.9.20)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기준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약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일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짝퉁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로 무대를 옮겨가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19일에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인 네이버(주), (주)카카오, 쿠팡(주) 등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⑤ 특허청·대전지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 걸어

| 한국특허청 (2019.9.26)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른바 '한류 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욱이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 ~ 1/3 수준(ex.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000원 / 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000원)으로 판매하여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하였다.

⑥ 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 졌어요 | 한국특허청 (2019.9.30)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도면 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 출원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로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특수기호 글자체는 출원인의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119자를 지정해야 하나, 앞으로는 16자만 도시하고 그 이외에 등록받고자 하는 기호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수기호 수를 최소화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글자체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희망하는 특수기호를 편리하게 작성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File No.127

위조품 차단은 세관의 지식재산권 신고부터



최근 온라인 쇼핑물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위조품도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품은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침해물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경조치를 통해 위조품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은 물론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세관 신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한국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시장에 위조품이 범람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조기 개발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해 업그레이드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 한국 관세청 고시 개정

지식재산권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신고를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4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1호)'를 개정하여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요지에 따르면 종전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의 세관신고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업자, 해외 공급자 등의 침해 관련 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임의제출로 변경되었고 신고서류 부수도 2부에서 1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관신고 유효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신고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상세 내용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1호)'를 참조바랍니다.

(일본어: <http://www.choipat.com/menu31.php?id=228>)

3. 세관등록 및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등의 업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아래와 같이 방문, 우송,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송 및 방문>

서울시 강남구 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TIPA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온라인 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

제출서류로는 권리신고서, 권리관계 확인서류, 침해물품 식별자료(카탈로그 및 설명자료), 침해의심 수출입업자 등의 침해관련 자료 등이 있으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무료이며 등록이 되면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10년간 유효합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침해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권리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발견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물품(모방품)일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보를 제출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통관보류가 지속됩니다. 상기 담보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이번 고시에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

또한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및 침해의심 물품 발견 시의 세관 문의에 대한 대응은 한국어로 해 주셔야 하며 한국 특허사무소나 법률사무소 대부분이 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최달용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변리사 최달용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1982년), 전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기시 히로야키 부소장)

File No.128

한국에서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증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한국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이번 호에서는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현황

특허심판원의 심판통계에 따르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및 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 심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 이었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2017년에는 2,124건에 이르렀으며,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207건, 2017년에는 2,172건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표등록취소 증가는 2016년 9월 1일 시행된 한국 상표법 개정 때 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상표법은 이해관계인만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표법은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누구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상표등록 취소율이 높아졌습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유형

실제 등록상표가 불사용 저장상표(특허청에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 사유가 이에 속합니다.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보유 등록상표의 경우 제때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그 등록이 취소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2)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

등록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래 사례1, 2 참조)

〈사례 1〉 특허법원 2017허1694 판결(확정)

| 등록상표 | 변형된 실제 사용상표 |
|------|-------------|
| | |

등록상표는 알파벳 “T”를 독특한 형상의 다각형 안에 배치한 도형과 그 아

래쪽의 문자부분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상표인데 반해, 실제 사용 상표 ‘THE ANANTI’는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의 도형은 그 독특한 형상 및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고려할 때 중요부분으로 보아야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외관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구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위 실제 사용상표는 위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 2〉 특허법원 2015허79판결(확정)

| 등록상표 | 변형된 실제 사용상표 |
|------|-------------|
| | |

특허법원은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부분 모두가 독자적인 요부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 사용상표는 영문으로만 되어 있고 도형 부분이 사용되지 않아, 양 상표는 거래 사회통념상 유사상표에 불과할 뿐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대응방안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표권자는 그 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후 3년간 그 등록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사용에 대한 입증은 제대로 못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등록상표가 취소되는 경우 위 제재규정에 의해 해당 상표권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실효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 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어야 하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변형된 상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출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상황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특허법인 가산 박운정 파트너 변리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년), 변리사 시험 합격(2002년), 대한변리사회(KPAA) 회원, 국제상표협회(INTA) 회원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하마기시 히로야키 부소장)